

7박8일 독일 기행문 (下)



◇ 독일 남부도시 뤼센에서...

7. 독일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가족주의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삶의 가치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개인주의의 '개체로서의 개인이 사회보다 선행하여 실재' 하며, '인생의 가치와 권리 측면에서 개인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정의가 가장 일반적이다. 개인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근대 유럽에서 태어난 사상 및 삶의 가치관이며, 개인과 개인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유럽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현재 유럽사회에서 삶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대적 개인주의는 유럽의 종교와 학문적 유산, 문화·전통적 인소들이 융합되어 오랜 세월의 시련과 투쟁으로 이뤄진 것이다. 독일사회에 고착된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재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반면 가족 관념은 담백하며, 이는 한국사회에 친성식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가족주의란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개개의 가족성원으로 본다고 중시하고, 가족적 인간관계를 가족 이외의 사회관계에까지 확대·적용하려는 사상'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삶의 이데올로기로 군림한 가족주의는 그 자체의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반면, 사회적 문제로서의 가족이 가족주의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충(忠)과 효(孝)를 기반으로 하는 동양의 유교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외세의 침략과 문화적 압력 속에서도 고유의 정체성과 생활문화를 지켜왔고, 가족을 토대로 하는 민족공동체를 지키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 가족주의는 '합리적 계약관계'를 위주로 하는 서구 가족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가족은 곧 혈연공동체를 의미하며, '나'를 포함해 '우리'를 강조하는 가족이 가족주의는 배타성을 내포한다. 전통적 가족주의는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 집단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한 이기주의로 변질되었다.

독일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가족주의는 두 나라의 국민성과 근본적인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차이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인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 보장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특징이라면, 한국인은 개인보다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도 타인과 어울림과 공동체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한국인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나'의 존재보다 '우리'를 강조하지만, 독일인은 개개인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우리(가족)' 보다 '나(개인)'를 우선시한다. 독일에서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부모가 그들의 생활에 별 간섭을 하지 않지만, 한국부모들은 자식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가족의 의무'를 다한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에서도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적 사고와는 달리 독일인들은 결혼당사자의 만남과 의견을 중요시한다. 퇴근 후에는 회사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한국문화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퇴근 후에는

개인시간으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독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이 매우 적는데, 이는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식당이 많고 서비스와 배달문화가 발달한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독일인들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남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생활하는 반면, 외로움과 ‘정’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현재 외로움과 고독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독일사회의 ‘국민병’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인은 가족의 끈끈한 정 속에서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며, 그것을 삶의 원동력 및 동기부여로 간주한다. 요컨대 우리의 인생에서 ‘나’ 위주의 개인주의와 ‘우리’를 중요시하는 가족주의 간의 단점은 상호 보완하고, 그 장점은 적극 발휘시키는 ‘상부상조’의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8. '라인강의 기적' , EU의 중심 국가

한국에 유명한 ‘한강의 기적’이 있다면, 독일에는 ‘라인강의 기적’이 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1960~80년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서울중심을 흐르는 한강을 통해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로,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라인강의 기적’에서 유래된 것이다. 독일의 대표적 강이며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라인강은 이웃국가들 간의 정치통합과 문화적 융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세기 후반 근대산업의 발달에 따라 라인강의 물동량은 더욱 증가되었고, 라인강의 운송업은 독일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라인강의 운송업은 독일물류의 20~30%를 차지하며, 독일의 경제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라인강변을 몇 시간 동안 달리면서 필자는 ‘푸르고 깊은’ 라인강에서 물자를 싣고 싣 없이 달리는 대형 바지선들을 목격했고, 따라서 ‘라인강의 기적’이란 말의 유래를 다소 알 것 같았다. 현재 라인강은 양안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종류구간에는 강의 기비보다 가파른 암벽과 우뚝 솟은 성(城)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 1980년대의 (중국) 개혁개방에 ‘작은 거인’ 등소평이 거론되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부흥을 상징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창조한 주요한 공신으로 두 사람이 거론된다. 그들이 바로 독일 현대사에서 ‘거물급 인물’로 인정받는 독일(서독)의 초대총리 아데나워와 그가 수상으로 재위하던 기간 경제장관으로 재직했던 에르하르트(후인총리)이다. 1949년 9월 자유시장경제를 경제발전의 지도방침으로 내세운 아데나워가 수장으로 선출되었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경제전문가’ 에르하르트

트는 14년간 경제장관으로 있으면서 독일경제의 부흥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 독일은 비참한 패전국으로부터 유럽경제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고, 현재 프랑스와 함께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주도함으로써 유럽연합(EU)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0년대 서독은 산업인프라를 복구하고 경제재건의 기반을 마련해 선진국대열에 진입했고 1960년대에는 경제규모 확장 및 현대화를 통해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1970년대에는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건설을 완성하고, 국제적으로는 유럽경제의 견인자 역할을 수행했다. 1990년 7월 동서독의 경제화해통합은 서독 마르크를 단일통화로 채택했고, 동독 경제를 서독의 시장경제체제로 흡수했다. 동서독일이 통일된 후 동독주민의 복지해택과 동독지역의 환경복구 및 낙후한 기간시설 재건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지만, 현재 동독의 경제발전은 서독의 80~90%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1990년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후 동서간 이념과 경제발전 차이가 기존 상 극박되었고, 통일독일은 유럽공동체(EC) 국민총생산 25%를 차지하는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현재 유럽 최다의 인구대국(8천2백여만)이며 EU의 중심국가로 발전한 통일독일의 현황은 남북으로 분단된 한(조선)반도에 주는 계시와 시사점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자극의 독일사회에는 여러 가지 내부갈등과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이 산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동서독의 주민 간에 잔존하는 이질감과 문화적인 위화감, 구동독인의 상대적 빈곤감과 사회체제가 서독화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 등은 통일독일의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그 지역 독일인들의 역임인도 내부갈등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난민문제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독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독일사회에 고착화된 개인주의 '병폐'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유럽의 최장수국가인 독일의 사회문제로 부상했으며, 이는 향후 독일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9. 온고지신, 유대인 강제수용소

6월 2일, 필자는 문헌 근처의 다하우 강제수용소를 전학하면서 히틀러와 나치의 극악무도한 파쇼적 만행을 실감했다. 다하우 강제수용소는 나치독일의 강제수용소로서 최초로 개설된 것이며, 문헌 북서쪽 약 16킬로미터 떨어진 다하우의 군수품 공장 대지에 세워졌다. 1933년 6월에 개설된 다하우 강제수용소는 가톨릭중앙당과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의 연립회장에 의해 세워졌고, 공식적인 명칭은 '정치범 수용을 위한 강제수용소'였다. 다하우 강제수용소는 그 후 독일전역에 세워진 수많은 강제수용소의 원형이 되었다. 개설 후 30여 개국의 20만 죄수들이 다하우에 수감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었다. 다하우 강제수용소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와 함께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한 나치독일의 강제수용소 상징이다.

독일 최대의 강제 집단학살소
 용소는 폴란드 부근에 세워진 아
 우슈비츠 강제수용소다. 1940년
 4월 히틀러의 명령 하에 건립된
 '아우슈비츠 1호'에는 주로 폴
 란드와 독일 정치범들이 수용되
 았다. 특히 1941년 10월에 건립된
 '아우슈비츠 2호'는 가스소 죄
 수들을 처형하는 '목욕탕'과 처
 형당한 죄수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시체보관실' 및 '화장막'을 갖
 춘 대규모의 집단 처형소로 개발
 되었으며, 이는 히틀러가 유류
 대인들을 멸종시키기 위한 '최후

의 해결책'이었다. 1942년 5월에 세워진 '아우슈비츠 3호'는 당시 대규모의 화학합성과 무농장에 노동자들을 공급해 주는 강제노동 수용소였다. '선별'된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무조건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졌고, 강제노동자들 중 과로와 질병 및 굶주림 등으로 허약해진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제거되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사망률은 보통 150~250만 명을 추산하지만, 최대 400만에 이른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다하루 수용소는 생체실험이 실행되었던 강제수용소로 유명하며, 수감된 죄수들을 의하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실험실을 세운 곳이다. 현재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17만㎡의 수용소 자리에는 2채의 다층건물과 60여 채의 수용소 건물들이 남아 있다. 1945년 4월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살아남은 인원이 겨우 3만2000명이었고, 고문과 영양실조 및 전염병 등으로 3만5000여명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다. 현재 다하루 수용소에는 각종 생체실험이 실행된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전시관과 학살 장면을 찍은 영화를 상영하는 소극장이 있으며, 가스실과 시체 소각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수용소 구역은 32개의 막사로 구성되었고, 전기 철조망 출입구와 배수로 및 7개의 감시탑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다. 다하루 수용소는 1945년까지 ‘큰 변화가 없음’ 운영되다가 장 오랜 강제수용소이기도 하다.

한편 같은 전파국인 일본은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참회와 나치의 유대인 학살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 및 역사적 고화에 대한 회개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해방 60주년 기념식이 베를린에서 거행된 적 있었다. 당시 강제수용소 생존자들 앞에서 나치독일의 과거사에 대해 '치욕'을 느꼈다고 말하는 슈뢰더 전 독일총리의 연설은 독일정부의 진솔한 참회와 약속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최근까지 강행한 일본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神社) 참배와 더불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에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현재 강제수용소는 독일인들이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는 온고지신의 '추모단지'로, 후세대의 교육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0. '맥주의 도시', 바이에른 뮌헨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독일인 1명이 매년 마시는 맥주는 500장통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가 마시는 물의 양과 비슷하다. 필자가 금번 독일 여행에서 펍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맥주를 마시면서 생활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독일인들의 일상모습이었는데, 독일인은 '맥주를 마시기 위해 태어났다'는 속언이 별로 이상하지 않았다. 독일 맥주는 지방특색이 강하고 종류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며, 현재 독일 전역에 넓혀지는 맥주공장 수는 무려 1500개에 달하며 맥주의 종류도 공장의 수만큼이나 많다고 한다. 독일 속담에 "맥주는 양조장 굴뚝 아래서 마셔야 제맛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자기 지방의 맥주를 먹어야 제맛'이라는 뜻이다. "맥주는 건강의 근원이며, 맥주를 마시는 것은 좋은 식사법, 하는 것과 같다"는 독일 속담처럼, 독일인들에게 있어 맥주는 음료수처럼 일상화되

었다. 따라서 현재 독일에 '비만 환자'가 많은 원인 중의 하나로 독일인들이 '영양가 높은 맥주를 즐겨 마시는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일견이다.

뮌헨은 독일 바이에른주의 주도(州都)로, 인구가 약 125만이며 베를린과 함부르크와 함께 독일의 3대 도시이다. 1506년에 바이에른 공국(公國)의 수도가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후 혁명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히틀러가 뮌헨에서 나치스 운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뮌헨은 '나치스 운동의 수도'로도 불린다. 독일의 중요한 예술문화도시인 뮌헨에는 고딕·르네상스·바로크·클래식 등의 건축물이 즐비한 반면, 현대식 고층건물 또한 적지 많으며 이는 독일 특유의 클래식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역사가 유구한 현대 도시 뮌헨에서는 '리하르트 바그너'와 '모차르트' 등 전통적인 음악축제가 열리고 있고, 각종 박람회와 국제회의가 수시로 개최된다. 특히 매년 9-10월에 열리는 맥주축제(Oktoberfest)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현재 뮌헨은 도르트문트에 이어 독일 제2의 맥주생산지이다. 흔히 프랑스가 포도주로 유명한 국가라면, 독일은 뮌헨의 맥주축제로 인해 '맥주의 나라'로 각인된다.

현재 문헌에서 개칭되고 있는 맥주축제는 통상 9월의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어 10월 첫째 주까지 계속된다. 즉 '10월 맥주축제'가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15일간 지속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월 축제'로 불리고 있는 것은 축제가 시작되었던 당시에는 10월 초부터 약 1주일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맥주축제 기간 당시의 맥주회사들은 6000~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텐트를 설치해 손님을 맞이한다고 한다. 또한 축제기간에는 500백만 리터의 맥주와 65만 마리의 닭 및 110톤의 소시지가 소비되며, 연간 축제기간 세계 각국에서 온 600만의 방문객이 문헌을 찾는다고 한다. 이 맥주축제는 1810년 바이에른 왕국의 루트비히 왕자 결혼식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축제가 일주일간 열광적으로 진행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10월 맥주축제'는 거대한 경제이익과 함께 현재는 문헌의 도시브랜드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 브랜드는 맥주이며, 맥주하면 뮌헨의 '10월 맥주 축제'를 연상한다. 뮌헨의 맥주 축제가 독일의 민족축제로 자리잡으면서 각국의 수많은 맥주팬들은 맥주를 마시기 위해 불원천리 뮌헨으로 휴가를 떠난다. 필자는 뮌헨에서 세계 '최대의 호프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겼지만, 여행기간 마셔본 독일 맥주 중 '쓴맛이 나는' 뮌헨 맥주보다는 쉘른 맥주가 입에 맞았고 인상에 남았다. 쉘른 맥주는 한국의 하이트(맥주)와 중국의 청도맥주 및 일본의 기린맥주와 그 맛이 비슷했다.

11. 세계적인 관광지, ‘백조의 성(城)’

6월 3일 필자가 마지막으로 관광한 명승고적은 독일의 남부도시인 취히겐 부근에 위치한 세계자연유산 관광지 ‘백조의 성’이었다. 독일어로 노이슈반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성은 우리말로 신백조석성(新白鳥石城)란 뜻이다. 중국에 유명한 만리장성이 있다면, 독일에는 역사유적지로 수많은 성(城) 건축물들이 있다. 13세기에 건축한 이 힐페르크성이 전쟁으로 인해 성의 일부가 ‘폐허’가 된 것을 방치해둔 것이 특징이라면, 1886년에 완공된 ‘백조의 성’은 바이에른 왕국의 마ximo 왕 루트비히 2세가 ‘자신의 향락을 위해’ 건축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후세에 회

19세기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남긴 루트비히 2세는 성이 완공된 후 강제 폐위되었고, '의문의 의사'로 연못에서 발견되었다. 19세기 대포의 발명으로 성이 '쓸모 없는 시대'였지만 루트비히 2세가 본인의 '순수한 취미'로 국고를 털어 성을 건축했고, 결국 그의 '순수한 취미'가 바이에른 왕국의 경제파탄과 궁극적 멸망을 초래했던 것이다. 성이 관광지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은 루트비히 2세가 성을 없애버리라고 유언했지만 후세에 많은 전설을 남긴 성은 없어지지 않았고, 현재 바이에른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된 것이다. 어린 시절 이야기로 들었던 '백조의 기사' 전설은 루트비히 2세가 정권을 잡은 후 성을 건축하게 된 직접적 계기이다. 작곡가 바그너의 후원자였고 오페라에 심취했던 루트비히 2세는 영웅담·모험담 같은 판타지에 빠져들었고, 특히 '로엔그린' 모험담을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로엔그린이라는 사람이 백조가 끄는 배에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공주를 구하고 그 공주와 결혼한다"는 '백조의 기사'의 전설 속에 나오는 성의 이름이 슈반슈타인성이었고, 그 이야기에 크게 감명 받은 루트비히 2세는 자신만의 '슈반슈타인성'을 꿈꾸었고 그 꿈을 현실화시켰다. 그 성이 바로 노이슈반슈타인성이며, 노이는 독일어로 '새롭다'는 뜻이다. 1869년에 시작된 노이슈반슈타인성(백조의 성)은 17년 만에 완공되었다. 역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성을 건축했지만 루트비히 2세의 판타지 집착은 그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했고, 늘어나는 궁의 채워져지는 그에 대한 귀족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결국 성이 완공된 1886년에 루트비히 2세는 노이슈반슈타인성에서 쫓겨났고, 작은 베르크스에 유배되어 2일 만에 후수에 '몸을 던져' 한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한다.

루트비히 2세는 새로운 ‘백조의 성’을 건축해 어린 시절의 꿈은 이루어졌던 그의 삶은 불행했고, 오스트리아 궁중과 약혼했지만 결국 결혼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7년 동안 노이슈반스타인 성을 짓는데 모든 정력과 (국가)재산을 쏟아 부은 그는 자신의 꿈이었던 ‘백조의 성’에서는 겨우 3개월 동안 살았을 뿐이다. 정치보다 낭만을 추구했던 루트비히 2세는 뛰어난 용모와 조용한 성격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18세에 왕위에 올랐지만, 정치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음악·시·미술·건축에 대한 애호와 함께 오로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에만 심취했다. 판타지의 매력에 매혹된 그는 자신을 바그너의 오페라 속 ‘백조의 기사’로 착각했고, 동화 속예 나오는 전설적 영웅처럼 살면서 엄청난 국고를 탕진해 결국 자기가 만든 연못에서 비극적 인생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설과 판타지 및 예술적인 추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백조의 성’이 오늘날 세계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루트비히 2세가 탕진했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후손들에게 되돌려 주는 역설적 결과가 이뤄진 것이다. 필자는 가장 비현실적 삶을 살았던 루트비히 2세가 오히려 국가에 재산을 늘려주는 ‘성공적인 왕’이 되었다는 현실에 심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바이에른 왕국의 마지막 왕인 루트비히 2세가 현실을 이탈하여 자신의 환락을 추구하기 위해 자은 '백조의 성'을 건축하면서, 필자는 '꿈'을 이뤘지만 비참하게 일생을 마친 '미운의 왕' 루트비히 2세의 '공파'를 음미해 보았다. 한편 조선시대 말기에 해국정책을 펼쳤고 왕실권위의 과시를 위해 거금을 들여 경복궁을 중건했으며, 그 비용을 각종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부과한 고종대왕과도 천조 말기에 외세의 침략과 나라

의 우환을 외면하면서 해군경비를 유용해 의회원을 재건하고 극도의 사치와 타락에 빠졌던 서태후(자희태후)를 연상했다. 요컨대 이들 모두가 권력을 남용해 거금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를 건축하여 후세에 '막대한 재산'을 남겨놓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결국 그들의 부패통치가 비이론은 왕국과 조선왕조 및 청나라의 쇠퇴와 몰락을 불러왔다는 '공통점'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그들의 권력 남용과 개인적 향락을 위한 집요한 추구가 역설적으로 후세에 '훌륭한 관광지'를 남긴 현실적 상황은 역사가 거겨놓은 이율배반적인 극적 아이러니이다.

12. 에필로그

급반 7박8일 독일 관광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녹색으로 질정미하다' '오염 없는' 독일의 환경산업이었는데, 독일에 대한 인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푸르다'라는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독일의 대지는 온통 '푸른색' 이었고, 녹화가 잘 되어있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졌다. 푸르름하늘과 길가의 울창한 숲 및 도시에 우거진 푸른 나무들을 보면서 독일의 발달한 환경녹화산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의 환경산업은 남북의 '차별 없는' 기후와 사시절 골고루 내리는 강수량 및 나무들이 사계절 동안 성장을 멈추지 않은 자연환경과도 관련이 없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독일인들의 환경보호 의식과 녹화산업에 대한 중의와 갈라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독일의 환경녹화 중 99%는 인공임으로, "전 독일인들이 나무만 베어서 팔아먹어도 3년은 산다"는 속설의 의미를 점차 납득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동서독이 통일된 후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고, 전진복지국가로 자리매김을 한 통일독일의 발달한 모습을 독일 전역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풍경 속에 자리 잡은 2~3층의 양옥들과 딸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자연복장 및 도농(都農)차별이 사라진 전원풍경을 보면서, 필자는 1970년대 대한국의 유명가수 남진이 부른 “자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꿈의 현실화를 실감했다. 한편 독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동독출신인 마르켈 총리의 “우리는 유럽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다”라는 광고판에서도 독일의 여성파워를 실감했고, 경제대국의 이어 ‘정체국가’이 되려는 독일 정부의 야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법과 사회제도 및 일상규칙 준수를 최우선시하는 독일인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에서 선진국들의 사회문화를 접감했다. 특히 일 전역에서 수많은 장수노인들을 보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근접한 독일사회에서 고령화 대책 마련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체감했다. 저출산·고령화는 바야흐로 한국과 중국에서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며, 이는 각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은 한·중·일 등 동아시아와 독일 등 EU의 국가를 막론하고 급박한 당면과제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백인이 불어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여행에 의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우는 지식은 그래서 더욱 값지고 수확이 큰 것이다. 금번 7박8일의 독일강연·관광을 통해 해외동포인 독일동포들의 현황과 희망,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적인 현황과 역사문화와 국민정체성을 다소나마 이해하였다. 아울러 동서양의 문화차이를 넘겨볼 것 역시 직접적 계기를 얻었던 것 역시 큰 수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 범술

요녕성 조선족 중소학교 실태 조사

2001년—2009년 8년간 학교와 학생수 50%이상 감소

중국조선족교육의 기원이 1906년 연변 용정에 세워진 서전사숙이라면 역사기재에 있는 우리 성 조선족교육의 시작은 1911년 설립된 환인현조선족소학교의 전신인 환인현성등장학교부터이다. 그 후 1920년 전후로 심양(1918년 우흥구 오가황조선학교, 1920년 서탑조선족소학교), 무순(1920년 신화조선족소학교), 신빈(1925년 왕청문화흥학교)일대에 조선족학교들이 일어서기 시작하였으며 1930년 후반기부터는 조선족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에 우후죽순처럼 조선족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49년 건국이후 요녕성 민족교육은 당과 정부의 올바른 민족정책하에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는 1979년 개혁개방이후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소학교, 중학교, 중등사범학교, 나아가 민영대학까지 규범화된 민족교육체계를 형성하여 민족의 전통, 문화의 전파와 계승, 민족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하여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으며 국가와 사회가 수요하는 인재양성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조선족학교의 현황은 어떠한가?

건국 60년간 조선족교육은 학교수나 학생수가 수량상에서 20세기 70년대~80년대 초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1990년대 하반기부터 수량상에서 급감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심심찮게 조선족학교가 폐교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성내 조선족학교의 현황은 어떠한가?

지난 1995년은 우리 성 민족교육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1995년 전후까지 요녕성 조선족중소학교학생수는 기본상 변화없이 전성기를 유지해왔다. 1995년 당시의 성교육학원 민족교연부의 통계에 의하면 요녕성 조선족인구는 23만 7백명이고 조선족학교수는 204개소(소학교 172개소, 초중 21개소, 독립고중 혹은 완전중학교 11개소)였고 학생수는 32,556명(소학생 21,460명, 초중생 7,173명, 고중생 3,923명)이었으며 교원수는 4,171명(소학교교원 2,490명, 중학교교원 1,681명)으로 수적으로 사상 전성기를 이루었다. 1985년 조선족중소학교수는 258개소였고 학생수는 30,942명이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우리 조선족들의 인구대이동, 인구의 마이너스성장, 원 민족공동체였던 조선족마을과 조선족학교들의 해체, 결혼가정의 급격한 증가 등 다방면의 요소로 인해 그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특히 조선족학교에 대한 충격이 컸다.

기자는 이에 관심을 갖고 오래전

부터 성내 조선족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아래 1995년을 토대로 2002년과 올해(2009년 4월) 진행한 조사통계를 바탕으로 성조선족학교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나름대로 진맥해보았다.

2001년 요녕성의 조선족학교수는 115개소로서 소학교가 86개소이고 초중이 17개소이며 완전중학교가 8개소이고 독립고중이(심양동광중학포함) 4개소였다.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중학교학교수는 별로 변화가 없으나 소학교 학교수는 6년간에 50%나 감소되었다.

일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요녕성 조선족중소학교수는 54개소로서 소학교가 32개소이고 초중이 11개소이고 완전중학교가 10개소이며 독립고중이 1개소이다. 2001년과 2009년을 비교할 때 8년간 조선족학교의 총학교수는 53.05%나 감소하였는데 그중 소학교수는 67.8% 감소하였으며 중학교수는 24.14%감소하였다. 원래 존재하던 성내의 심양시 조선족제1중학교, 무순시 조선족제1중학교, 철령시 조선족고급중학교, 심양시동광중학교 등 4개 독립고중에서 학생래원 부족 등 원인으로 동광중학교는 조선족학생모집을 중단하였고 무순시조1중은 초중인 무순시조2중과 합병, 철령시 조선족고급중학교는 철령시 조선족초중과 합병하여 완전중학교로 되어 독립고중은 심조1중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각 시 별로 보는 학교의 분포.

심양시에 소학교 8개소, 중학교 6개소(2001년 소학교 20개소, 중학교 7개소)이고 무순시에 소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2001년 소학교 19개소, 중학교 6개소)이며 철령시에 소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2001년 소학교 12개소, 중학교 3개소)이고 안신시에 소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2001년 소학교 4개소, 중학교 1개소)이며 영구시에 소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2001년 소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이고 본계시에 소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2001년 소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이며 단동시에 소학교 4개소, 중학교 4개소(2001년 소학교 13개소, 중학교 5개소)이고 대련시에 소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2001년 소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이며 료양시에 소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2001년 소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이고 반금시에 소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2001년 소학교 13개소, 중학교 2개소)가 있다.

2001년 성내 조선족 학생수는 26,596명으로 소학생수는 13,036명이고 초중생수는 9,311명이며 고중생수는 4,249명이었다. 1995

년과 대비할 때 중학생수는 19% 감소되었고 소학생은 감소율이 40% 나 되어 8,424명이나 감소되었다. 반면 초중생과 고중생수는 늘어났는데 이는 학생가정들의 생활수준제고에 따른 교육에 대한 중시, 9년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초중생들의 중퇴가 적어지고 고중들에서 학생모집수를 확대한 결과이다. 2001년 전후를 분수령으로 우리 성 조선족중중들에서는 학생수가 격감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2001년 심양시 조선족제6중학교의 한계 학년의 학생수가 450여명에 달하였으나 지금은 고작 2백명을 겨우 넘기고 있다.

현재 요녕성 조선족 중소학교 학생수는 12,618명으로 소학생수는 5,793명이고 초중생수는 3,406명이며 고중생수는 3,419명이다. 2001년과 대비할 때 8년간 우리 성 조선족학생 총수는 52.56% 감소되었고 소학생수는 감소율이 55.56%로 7,243명이나 줄어들었고 초중학생수 감소율이 63.42%나 되어 5,805명이나 감소되었으며 고중생수는 19.66% 감소되었다. 현재 요녕성 조선족학교 고중생수는 성조선족사범학교의 학생 740명까지 합하면 4,159명으로 초중생보다 753명이 더 많다. 이는 조선족고중의 학생래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1년 요녕성 조선족학교 교원수는 3,045명으로 소학교 교원이 1,428명이고 중학교 교원이 1,617명이었다. 1995년과 비교할 때 중학교 교원수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소학교 교원수는 1,062명이나 감소되어 감소율이 43%에 달하였다. 현재 우리 성 조선족학교의 교원수는 2,243명으로 소학교 교원수가 967명이고 중학교 교원수는 1,276명이다. 2001년과 비교할 때 총교원수는 26.34%나 감소되었고 소학교 교원수는 32.3% 감소되었으며 중학교 교원수는 21.1% 감소되었다.

하강선을 긋고 있는 조선족학교수와 조선족 학생수는 언제야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기자의 조사에 의하면 요녕성 조선족학교의 고중이나 초중은 고급학년에서 저급학년으로 학생수가 뚜렷한 하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존해있는 32개소 조선족소학교들중에서 대다수의 학교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수의 파동에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이다.

요녕성 조선족학교의 소학교 1학년부터 고중3학년까지 각 학년의 학생수는 아래와 같다. 소학교는 1학년 834명, 2학년 819명, 3학년 873명, 4학년 865 명, 5학년 855명, 6학년 849명이고 초중

은 1학년 960명, 2학년 1,164명, 3학년 1,282명이며 고중은 1학년 994 명, 2학년1,096 명, 3학년 1,329명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바 성조선족사범학교와 직업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감안하면 우리 성 조선족학교의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년은 고중 3학년으로서 아래 학년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감소되다가 소학교 6학년에 이르러 800명선에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조선족소학교들이 6년전부터는 기본상 큰 파동없이 해마다 800여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였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수년 후부터 일정한 기간 우리 성의 조선족학교는 고중이나 초중, 소학교를 막론하고 한계 학년의 학생수가 800여명이 된다는 말인데 이때 우리 성에는 모두 몇개의 조선족 소학교, 초중, 고중이 필요하겠는지, 학교의 분포는 어떻게 조정하겠는지 지금부터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족학교 학생래원 급감의 주요원인의 하나는 산악제한정책과 조선족여인들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출산율저하이다. 1980년대 중기부터 개혁개방에 따른 농촌토지도급제의 실시와 시장경제체제의 건립은 사람들의 생활절주를 가속화 시켰고 생활부담을 증가시켰으며 향락주의사상의 침투로 생육관념의 변화를 일으켜 많은 조선족가정들에서 아이를 둘 낳을 수 있었지만 하나밖에 낳지 않았다. 따라서 중한수교이후 많은 조선족여인들이 국제결혼을 해한국으로 나갔다. 통계에 의하면 중한수교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5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족여인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진출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태어날 수만명의 조선족어린이들이 한국으로 류설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영향으로 조선족소학교들은 1990년대 중기부터 학생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근년 들어 조선족학생들의 한족학교에로의 유실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데 이는 조선족학교 학생래원 급감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날 조선족학생들이 한족학교로 유설되는 주요원인이 분산적인 거주조건, 조선족어문론, 조선족학교의 교육설 문제 등이었다면 지금은 조선족마을에 있던 학교가 폐교되고 합병되면서 기숙제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따른 학습비용부담증가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한 학생이 현성에서 기숙하면서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은 월당 5백원이상이다. 농촌에서 는 10무를 다루는 농가의 수입이 만원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조건이 여의치 않은 가정들에게 있어서 이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어린자식을 혼자 멀리 떨어져있는 기숙사에 보내자니 마음이 애처로와 학교가 있는 도시에 세집을 얻기도 하는데 그러자면 한사람이 한국에서 일년 일해서 번 돈을 절반 탕진하기가 일주다. 그렇다보니 적잖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근처의 한족학교에 자식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2001년 영구시조선족소학교에 합병된 개주시 서해향쌍천안조선족학교의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쌍천안조선족마을은 500여호가 사는 룡남지구에서 제일 큰 조선족마을이다. 당시 마을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영구시조선족소학교에 합병시켰으나 대다수 학생들은 영구시조선족학교로 가지 않고 당시의 한족학교에 다녔다.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학전반과 소학교 1, 2학년만 운영하는 학교를 회복시켰으나 지금도절반이 넘는 20여명 조선족학생들이 당시의 한족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와 같이 해마다 한족학교로 유설되고 있는 조선족 학생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잖은 수입은 틀림없다.

우리 성 조선족학교 학생래원의 급감과 이로 인한 조선족학교들의 폐교와 합병은 우리 성 조선족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선 학교의 합병으로 인한 학교규모의 확대, 당지사회의 정치, 경제중심지에 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로부터 오는 각종 혜택, 교육자원의 합리적인 배비와 인력, 물력의 집중은 조선족학교들의 교육질 제고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앞으로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되어주었다. 우리 성에서는 1998년 청원현조선족기숙제학교의 건립을 시작으로 선후하여 환인현조선족기숙제학교, 관전현조선족기숙제학교, 영구시조선족기숙제소학교, 신빈현조선족기숙제학교, 대와현조선족기숙제학교를 건립하였으며 성공적인 경험을 쌓고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었다.

다음 조선족학교의 합병은 조선족사회의 새로운 인구유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더욱 높은 차원과 더욱 좋은 환경에서의 조선족교육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농촌조선족학교의 폐교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새로운 우수한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갖춘 곳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교육성장점을 형성하고 있다. 우 리 성을 놓고 볼 때 조선족이 거거 없었던 영구시 발여권에 4,000여호의 조선족들이 이주해 살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중시를 불러일으켜 국영조선족학교(현재 70여명의 학생을 갖고 있음)를 설립하게 되었고 지난 5월에 5천여명방매터에 달하는 학교청사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십여년전 학생

새로운 시작

詩 葉鴻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작
흘러간 냇물에 흩터 지워지고
꺾인 풀잎 떠난 이슬 자국도 없다

이미 과거는 없다
오늘도 새날
내일도 새날
새 빛만이 큰 길로 우릴 이끈다

새벽 힘차게 열고
새로운 한주 더 큰 사랑을 딛고 온다
새해가 우릴 기다리고 있다.

옛일을 기억 말고
항상 새로움 향해
새로운 날을 위하여
작은 풀잎마다 꽃등을 내 건다

(작자는 前 대전시장임)

수가 몇십명밖에 되지 않던 대련시조선족학교는 지금 5백여명의 학생을 가진 12년제 완전학교로 발전하였다.

한편 조선족학교 학생래원의 급감과 조선족학교의 폐교는 조선족사회에 많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첫째, 조선족학교의 대량적인 폐교는 조선족들의 9년제 의무교육보급에 영향을 주고 전 민족의 자질향상에 영향을 준다. 농촌학교의 대량적인 폐교는 학부모들의 학습비용부담을 과중시켜 적지 않은 중퇴학생을 낳고 있으며 한족학교로의 유실을 야기시키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농촌조선족기숙생의 학습비용은 한족학생보다 5배이상 높다.

둘째, 조선족학교의 대량적인 폐교는 조선족교원들의 대량적인 “실업”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조선족교원 과잉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조선족학교의 폐교로 인해 전 성 조선족학교의 1,953명교원이 “실업”을 당하였고 지금도 교장들은 남아도는 교원들을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근 2,000명에 달하는 국가교원편제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명 교원의 연봉을 4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고스란히 8천만원을 흘려 버린 셈이 된다. 뿐만아니라 학교수의 대폭 감소는 성, 시, 현, 향의 민족교육관리체계에도 영향을 주어 조선족 민족교육간부들의 “실업”도 초래하였다.

셋째, 조선족학교의 대량적인 폐교는 고정자산의 유실을 초래하였다. 연 150여개소에 달하는 폐교된 학교청사들은 마을에서 헐

값에 매각하거나 혹은 당시의 정부들에서 회수하였다. 이미 폐교된 150여개소의 학교를 보면 그 어느 한 학교도 우리 민족성원들의 땅이 배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청사들이 속속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조선족농촌학교의 폐교는 많은 조선족마을의 황폐화를 가속화하였다. 마을학교의 폐교는 학생을 둔 집들이 농촌마을을 떠나도록 등을 밀어준 셈이 되었고 마을의 문화생활중심지였던 학교가 사라지니 사람들의 마음도 홀어 지게 되었다. 하여 전에는 해마다 조직하던 운동회, 들놀이, 명절 축제 등 대형행사들을 지금은 조직할 엄두도 못 내고 지어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오락할 장소마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3,000여무의 논과 밭에 200여호의 조선족들이 모여 살던 한 마을에서 30여년을 당치부서기로 사업해온 한 조선족간부는 지금 늙은이들을 위주로 50여호가 동네를 지키고 있는데 이들마저 떠나면 우리 조선족조상들이 일군 이 땅을 누가 지키겠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하였다.

조선족학교와 조선족학생의 급감,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의지에 의해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제때에 민족교육의 발전추세를 잘 진맥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 면에서 본 조사가 조선족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장원한 견지에서 생존과 발전의 결책을 내리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요녕신문 윤청 기자



新华报社换钱所



中国航空售票处

全方位为在韩中国各族同胞提供优质服务

赴中国各地特价飞机票、各类赴韩邀请手续、结婚、离婚及领养手续代办、公证、认证及加快速度、各种法律问题免费商谈、H-2再入境及其它各类入境疑难问题咨询、公伤、产灾、退職金及拖欠工资免费商谈、中国驾照换韩国驾照、提供出差现场翻译、赴韩国留学签证全程代办、人民币与韩币自由兑换且汇率高。

联系电话: 02-866-8188, 02-6083-7379, 010-5628-9779, 010-7773-1688

地址: 首尔市九老区加里峰2洞88-18 地点: 首尔7号地铁南九老站3号出口

찌든 때, 얼룩 제거에 탁월한 효과, 악취제거, 살균기능...

무독성, 무공해, 인체에 무해하며 저 거품으로 물 절약 효과

유독가스가 없어 쾌적한 내부환경 조성...

업소전용세제출시

야채/과일 전용 세정제

- * 무독성 고급 야채 과일 세척세정제.
- * 순식물성 세제로 야채 과일 세정에 안전함.
- * 각종 세균및 잔류농약 제거 능력이 탁월함.
- * 인체에 무해한 보건복지부 인가 1종 세제.

환경은 우리의 미래

1종 원천세제

저희 업소의 주방식기는

친환경세제를 사용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순식물성 세제”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슬임추출액 친환경세제

(주) 엔크리너

- 무독성
- 생분해성(99.9%)
- 비부식성
- 비인화성
- 비폭발성
- 강력한 세척력

전화 : 02)2678-7277

02)2676-6866

010-3912-0304

www.okcld.co.kr

2008年模范·先进单位 - 2008년 모범·선진단위

为宾中国旅行社--中国航空售票处
웰빙중국여행사--중국항공대표소

**** 법무부출입국 중국동포 새 정책 무료상담 ****

오성그룹관광부-웰빙중국여행사는 정구허 기업체(등록번호:000022)로서 중국남방항공, 국제항공, 하남항공, 해남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의 위탁을 받고 항공권을 예약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의 여행사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중국 현지인 직원들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열정적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혹시 바쁜일정으로 인하여 오실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화 또는 팩스로 비행기표 예약 가능하며 무료로 집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한중 수속서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本社是隶属中国独资企业-五星集团公司下属的国际旅行社。本社持有在韩营业许可证书，并聘用中国职员，以专业、热情周到的服务，为您提供价格最合理的机票，因工作不能亲自访问的顾客，只需传真复印件给我社，确认汇款后全国各地免费邮寄。

五星集团外国人服务中心竭诚为您提供各种疑难商谈，同时代理各种疑难韩中手续。如亲属邀请、领养、取得国籍、DNA检验、居留资格变更、签证、反签证、公证、认证等。

特别专业办理不回国合法(非法)居留者(汉族)结婚。
持有中国驾驶执照并合法身份者，换取韩国驾驶执照。

중국어면허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中国语 : 031) 234-5888 한국어 : 031) 235-5155
传 真 : 031) 898-8858 手 机 : 011-1718-5188

帐号 : 472910086-28807
(하나은행)
예금주 : 강 호

地 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179-1(2F) 水原站附近

中国民航售票处

飞往中国大陆的所有航路

热线 0505-808-1688



중국동양항공(MU)
Sino Eastern Airlines



중국국제항공(CA)
Air China



중국북방항공(CN)
China Northern Airlines



중국남방항공(CZ)
China Southern Airlines



电话: 02-837-7252

手机: 010-9574-1688

航 段	搭乘日	航班号	出发	到达	航 段	搭乘日	航班号	出发	到达
仁川-沈阳	每 日(四日)	CZ682	12:45	13:30	仁川-北京	每 日(四日)	CA124	15:10	16:30
仁川-大连	每 日(四日)	CZ686	12:00	12:00		CA126	18:10	19:20	
仁川-哈尔滨	每 月(五日)	CZ694	18:50	20:00		CZ 318	12:50	13:45	
仁川-长春	每 日(四日)	CZ688	13:35	14:25	仁川-上海	每 日(四日)	MU801	10:45	11:30
仁川-杭州	每 月(五日)	CZ674	14:35	15:40		MU502	12:55	13:40	
仁川-烟台	每 月(五日)	CA144	15:10	16:30		MU506	15:35	16:10	
仁川-青岛	每 日(四日)	CA128	14:00	14:20			MU508	19:55	20:30

代办各种翻译/公证
大使馆认证/签证
亲属邀请/结婚签证
离婚手续/亲子鉴定

각종서류대행
번역|공증|대사관인증
중국비자/친척초청
결혼서류/이혼수속

中国民航售票处

서울조선국교회2층 2호선대행역 구로중학교영공목
전화 (电话): (0505)808-1688
팩스 (传真): (0505)808-1689
외환은행 080-18-53055-5 예금주 이철권